

내야 고민 많던 KIA - 빠른공 찾던 두산 '원원'



홍건희

‘호랑이 군단’이 트레이드 카드로 분위기를 반전을 꾀했다. 트레이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행 과제들이 있다.
 KIA타이거즈는 지난 7일 두산베어스와 원정경기가 끝난 뒤 홍건희(28)와 류지혁(26)의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빠른 공을 가진 우완 투수를 내준 KIA는 전천후 내야수를 받아들였다. 두 팀의 고민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트레이드였다.
 초반 불펜 난조로 어려움을 겪은 두산은 선발 이용찬이 팔꿈치 수술로 빠지면서 마운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선발과 불펜 모두 가능한 홍건희는 두산에서 활용 가치가 높았다.
 KIA는 내야 고민 중이다. 이범호에 이어 안치홍이 빠지면서 내야의 확실한 카드는 김선빈이 유일하지만 잔부상이 많아 풀타임이 쉽지 않다. 7일 ‘말형’ 김주전이 돌아왔지만 역시 부상과 나이라는 변수가 있다.
 여기에 백업은 물론 1·2군 격차도 크기 때문에 특별한 전력 강화 요인이 없다.
 KIA는 공·수·주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투좌타인 류지혁은 충암고를 졸업하고 지난 2012년 두산에 입단한 9년 차.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친 그는 프로 통산 7시즌 동안 497경기 출전해 타율 0.267, 8홈런, 102타점, 195득점, 35도루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20경기서 타율 0.417(24타수 10안타)에 1홈런 4타점 10득점을 만들었다.
 경쟁한 두산 야수진에서 경쟁하던 류지혁에게 KIA는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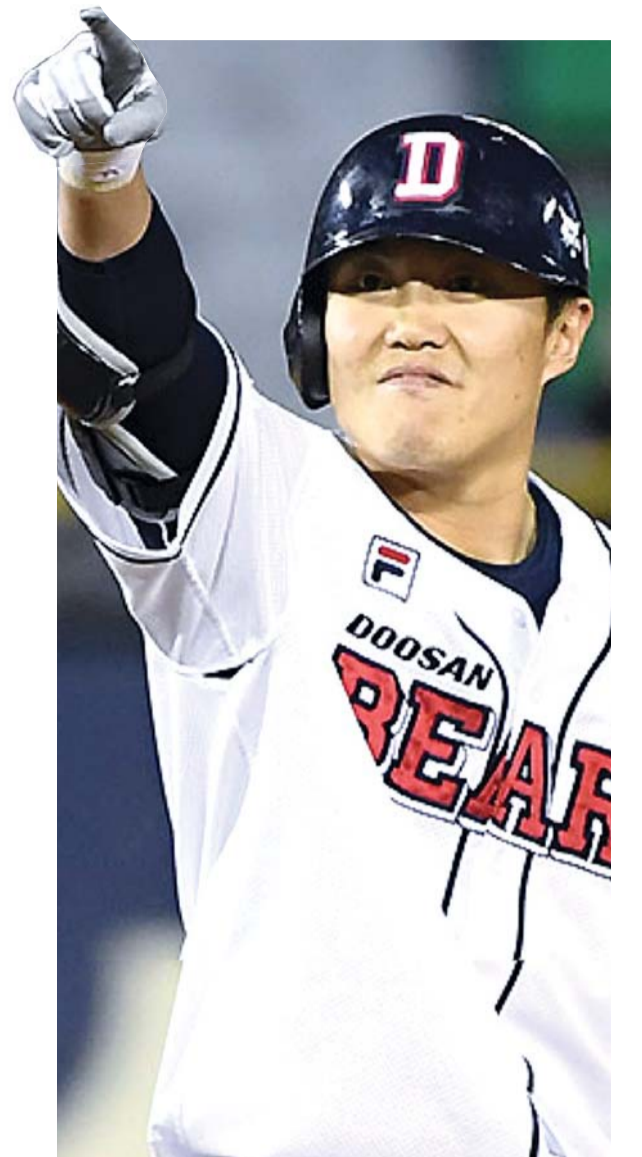
KIA 홍건희-두산 류지혁 트레이드

KIA, 내야 수비 오랜 고민
 김선빈 외 확실한 카드 없고
 주전·백업간 실력 격차 커
 류 영입...공·수·주 업그레이드

두산, 이용찬 부재로 마운드 과부하
 홍, 선발·불펜 전천후 활용 가능

망’이다.
 재능있는 내야수가 합류했지만 바로 전력 강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수비 안정화가 필요하다. 내야에 크고 작은 수비 실수가 이어지고 있다. 두산전 싹쓸이 3연패 뒤에는 실책이 있다. 거친 수비의 내야수 사이에서 수비 좋은 박찬호도 의욕만 넘쳤다.
 트레이드로 급한 불을 껐지만 미래의 고민도 남아있다.
 야수진, 특히 내야는 KIA의 오랜 고민이다. 주전과 백업의 큰 격차에다 세대교체라는 숙제까지 겹쳤지만 올 시즌에도 확실한 답은 찾지 못했다. 또 지난해 ‘깜짝스타’가 된 박찬호가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내야만 고민이 아니라 접이 더 큰 문제다. 김호영으로 외야에 힘을 더했지만 다음 대안으로 떠오르는 선수가 마땅치 않다.
 KIA는 그동안 야수 육성이라는 발등의 불에도 투수 영입과 육성에 치중해 왔다. 시즌 전 장영석을 트레이드하며 내야 자원을 더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이적생 나주환의 활약이 있었지만 ‘임시방편’에 가까운 베테랑의 후손이다.
 단기전에 전력 강화를 이룰 수 없는 만큼 야수진의 젊은 선수층은 앞으로 KIA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
 홍건희 유출이 마운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KIA는 야수진의 약세에도 탄탄한 마운드로 승리를 쌓아오고 있다. 홍건희는 추격조를 맡아 선발과 불펜진의 과부하를 덜어줬다. 높은 선발진과 막강 필승조를 가지고도 추격조가 약점으로 꼽혔던 만큼 홍건희의 이탤이 예기치 못한 마운드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트레이드 효과를 최대화하고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비 안정화와 마운드 과부하를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싹쓸이 3연승 뒤 싹쓸이 3연패를 기록한 KIA는 KT 위즈에 이어 SK 와이번스와 원정길에서 만난다.
 9일에는 KBO리그의 ‘현재’ 양현종과 ‘미래’ 소병준이 지난 5월 28일 이후 다시 한번 맞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지혁

광주 FC, 5전6기 첫 승 ... 진짜 게임 지금부터



광주FC의 펠리페(오른쪽)가 지난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45분 헤딩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1 6라운드 수원에 1-0 승
 펠리페, 후반 추가시간 극장골
 박진섭 감독 ‘교체카드’ 적중
 “부상 선수들 복귀해 완전체 구성
 조직력으로 승전보 더 올릴 것”

광주FC의 펠리페가 마침내 ‘승리의 찬가’를 올렸다.
 광주는 지난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의 2020 K리그1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경기 종료 직전 펠리페가 시즌 첫 골을 터트리면서 ‘해결사’의 귀환을 알렸다.
 0-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는 것 같던 후반 45분.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지면서 양 팀의 마지막 공세가 전개됐다.
 박진섭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했다.

박진섭 감독은 앞선 후반 39분 스피드로 무장한 엄원상을 빼고 마르코를 투입했다.
 후반 추가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마르코가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다. 수원 문전에서 이종성의 수비를 뚫은 마르코가 오른쪽으로 뛰어들어 펠리페를 향해 공을 올려줬다.
 펠리페는 머리로 정확하게 공을 터치하면서 그대로 수원 골대를 갈랐다.
 애타게 기다렸던 ‘K리그1 득점왕’ 펠리페의 시즌 첫 골이었다. 광주는 그대로 남은 시간을 버티면서 개막 6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지난 2017년 10월 22일 상무 상무와의 홈경기 1-0 승리 이후 960일 만에 기록된 광주의 K리그1 승리였다.
 이 승리로 광주는 ‘수원성의 강적’이 됐다.
 광주는 앞서 수원과의 맞대결에서 2승 5무 7패로 열세를 보였다. 이번 대결을 통해 광주는 수원전 세 번째 승리에 성공했다. 3승 모두 적지에서 이뤘다.
 5년 전 같은 날 광주는 수원 안방에서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수원에 거둔 첫 승

리였다. 그리고 지난 2016년 6월 29일 수원 원정에서는 김민혁과 송승민의 골로 2-0 승리를 장식하면서 ‘수원성’ 관공석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시 한번 적지에서 승리를 거둔 광주는 최하위에서 10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되살아난 펠리페의 해결사 본능과 함께 박진섭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다.
 스리백으로 경기를 시작한 공수 밸런스에 초점을 맞춘 박진섭 감독은 후반 11분 이소움을 투입해 포백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전술 변화를 보여줬다. 이후 김정환과 마르코를 넣어 화력을 강화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K리그1 첫 승을 기록한 박진섭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 열심히 뛰어진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부상 당했던 선수들이 복귀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완전체가 된 만큼 더 끈끈한 조직력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4연패’ 한화, 최원호 감독대행 체제

퓨처스리그 감독 선임...한용덕 감독, 연패 책임 자진 사퇴

한용덕(55) 감독이 중도 하차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최원호(47) 퓨처스(2군) 감독에게 1군 감독대행을 맡겼다.
 한화는 8일 최원호 2군 감독을 1군 감독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한용덕 감독은 전날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 끝난 뒤 14연패의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1군에 오를 최 감독대행은 인천고-단국대 출신 우완 투수로 1996년 현대 유니콘스에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했다.
 프로 14시즌 통산 309경기에서 67승 73패 3세이브 3홀드에 평균자책점 4.64를 기록했다.

현역 은퇴 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LG 트윈스에서 재활군 및 2군 투수코치를 지냈고, 이후로는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화는 감독대행을 선임한 데 이어 팀 재정비를 위한 코치진 보직 개편도 함께했다.
 최원호 퓨처스 감독이 1군 감독대행으로 선임됨에 따라 퓨처스 감독은 전상렬 전 육성군 총괄 코치가 이어받는다.
 전날 1군 타격 코치로 등용된 정경배 코치는 수석코치를 겸하고, 정현석 코치가 타격 보조 코치를 맡는다.
 1군 투수코치는 송진우 코치, 불펜코치는 박정진 코치가 선임됐다.
 /연합뉴스

전남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3개월만에 훈련



전남 론볼선수단이 훈련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국현, 송명준, 이덕중, 소원기, 이영숙, 정상철, 양승호, 황동기 선수. <전남 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3개월만에 훈련을 재개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8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직장팀) 4종목(골볼, 론볼, 배구, 축구) 선수들이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론볼장), 목포 스포츠포지스 등지에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그동안 훈련을 중단했었다.
 이들의 목표는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남 선수단의 한 자릿수 순위진입에 기여하는 것이다.
 골볼, 론볼팀은 올해 국가대표 선수를 영입하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전술·개인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 팀은 올해 경북(구미)에서 열린

는 골볼 종목 1위 탈환과 론볼 종합 3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잡았다.
 전남 장애인 직장팀은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전남의 선전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남장애인체육회는 평가했다.
 전남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4개팀은 2018년 창단했으며, 이 가운데 골볼·론볼팀은 3년 연속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까지 3억 7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김은래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다수 포함된 전남장애인 팀이 전국 장애인체전과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둬 전남을 알리고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넓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